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전

전북자치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도·시군, 불법상행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동원 강력 계도
도민·외국인 등 모두가 쉽게 접근가능한 가격정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는다.
지도·단속 대상은 해수욕장 8곳, 계곡 20곳, 자연휴양림 17곳, 야영장 168곳 등 213곳으로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피서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등 가격표시 △판매가격 외부 공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특사경을 비롯한 도·시·군, 특사경, 상인회, 소비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고, 도 실국장급 중심 시·군별 물가책임관도 편성해 시·군마

다 피서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물가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 시정 조치하고 위반·부당 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전북자치도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전북은 춘향제에서 바가지요금을 잡고, 117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은 사례를 이어 나가겠다."며 "바가지요금 없는 전북에서 여름 피서를 즐기시고 다시 찾는 명소가 되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원광대 글로벌대학 본지정 대응 협의회의'를 가졌다.

원광대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지원사격

전북자치도, 협의회의 열고 도 지역발전 방향·대학 혁신안 연계 실행계획 협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원광대의 글로벌 대학30 본지정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원광대 글로벌대학 본지정 대응 협의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4년 글로벌 대학 30 예비지정 20개 대학에 포함된 원광대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대학이 지역발전의 혁신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을 표방한 원광대가 글로벌대학에 최

종선정되면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한 동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광대는 글로벌 대학을 통해 생명산업의 혁신·R&D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생명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생명 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원광대는 글로벌 대학 3대 목표로 △생명 산업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QS 생명 산업 분야 세계 100위권 진입 △글로벌 생명 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통한 3천 개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권 생명 산업 미래인재 양성의 요인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관련 분야 외국인 유학생 3천 명 유치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 대학간 통합과 구조 조정을 통한 생명 산업을 특성화할 계획으로 △자율선택형 학사제도 운영 △글로벌+융합 교육의 결합인 L2G(Local To Global) 프로그램 운영 △전북바이옴융합대학원 신설 △대학 내 3만㎡ 규모의 생명 산업 집적화 빌리 구축 △글로벌 메디컬 인재를 위한 글로벌 생명산업대학 설립을 통한 글로벌 생명인재배출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생명·바이오 분야와 연계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원광대가 반드시 글로벌 대학에 선정돼야 한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 원광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발전 기여 전북인 찾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착수

전북자치도, 오늘부터 개인·단체 등 후보자 접수
혁신·경제·나눔·문화 등 4개분야 선발 시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8일부터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현재까지 모두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각 분야에서 전북발전과 명예를 빛낸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 바 있다.
수상 분야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의 4개 분야에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
혁신 분야는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 분야

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나눔분야는 사회 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뽑게 된다.
후보자 접수는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및 시·군 자치 행정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제44회 도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수상자들은 전북발전과 도민 화합을 도모해 자랑스러운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경위 "성비 불균형 직업편중 등 해소할 것"

특정직업군 편중 비판에
자치경찰위원 1명 사퇴
"공백 최소화 위해 최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일 비상임위원인 남준희 위원(번호사)이 자치경찰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발전을 위해 여성, 교육계 등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다양성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견해를 추천기관인 위원추천위원회에 전달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임위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고, 9 1차 회의를 열어 7월중 보궐위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 선정시 여성 성비 불균형 해소와 학계·인문 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남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속한 후임위원 선정을 통해 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산림청, 오늘 부안 위도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고시

총사업비 80억8000만원 투입... 내년 기본·실시계획 용역 시행
2026년 조성계획 승인 후 2027년 공사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부안군은 산림청이 오는 8일 부안군 공립 위도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위도 자연휴양림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되는 면적은 29ha(28만9,846㎡)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은 지난 2022년

10월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작으로 대상지 검토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3월 국유림관리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연휴양림 지정 대상지 현지 조사를 진행해 지정 구역 내 국유림(1필지), 사유림(3필지), 공유림(7필지) 등 총 11필지에 대한 구역 지정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를 진행하고 4월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서류검토를 거쳐 이번에 위도 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하게 됐다.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0억8,000만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7년 공사를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되는 시설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 체험시설 등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큰기회, 큰길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2024. 10. 22(화)~24(목)
전북대학교 일원